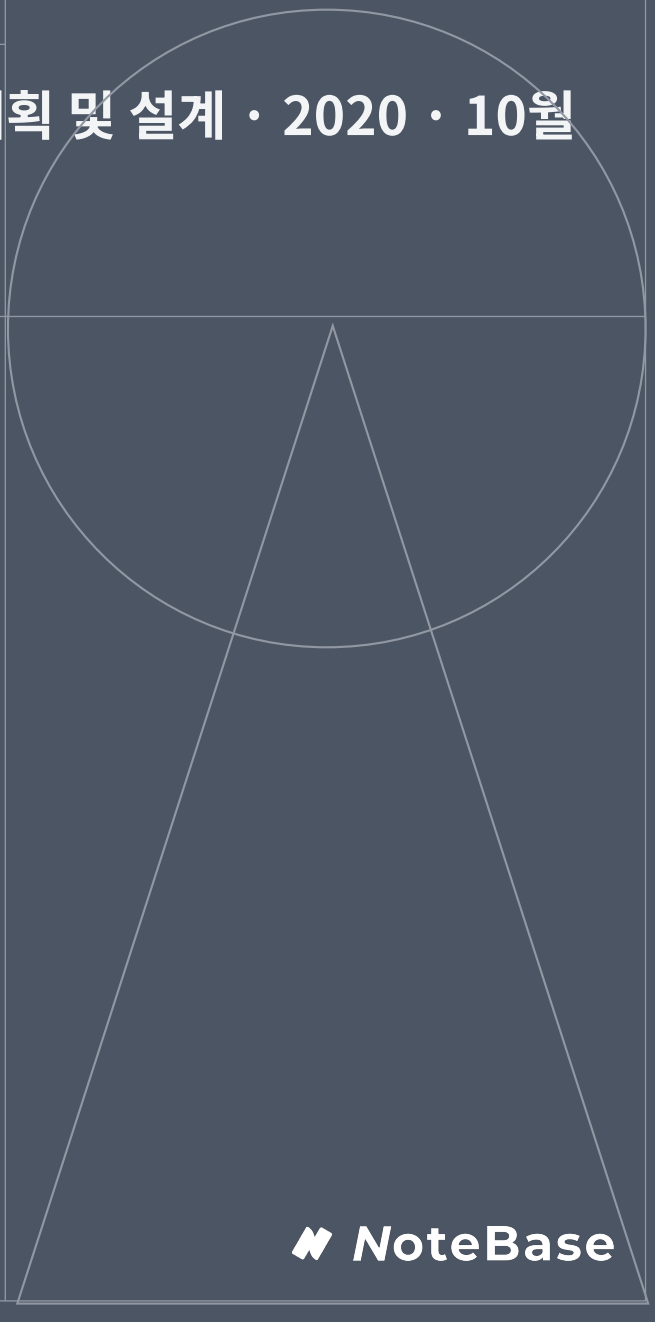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 10월

문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에서 5만m^2 이상의 정비계획은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에서 30만m^2 이상 100만m^2 미만의 개발계획은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서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은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해당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 사업 규모, 세대 수 또는 상주인구에 따라 정해지는 최소 확보 면적이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별표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유통산업발전법상 사업계획 등을 구분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중 30만 m^2 이상 100만 m^2 미만은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이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1천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한다.
②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에서 5만 m^2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한다.
③ X: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에서 30만 m^2 이상 100만 m^2 미만인 경우의 기준은 선지처럼 1인당 $9m^2$ 또는 부지면적 12%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이고, 올바른 표현은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이다.
④ O: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서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은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을 확보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도시개발법」상 30만 m^2 이상 100만 m^2 미만 구간의 기준과 더 큰 규모 구간의 기준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사업 근거 법률만 보지 않고 규모 구간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근거 법률을 확인하고, 그다음 세대 수·정비구역 면적·개발계획 면적·상주인구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나누어 판단한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 면적 구간이 바뀌면 1인당 면적과 부지면적 비율이 함께 달라진다.

암기 포인트

도시개발 30만 이상 100만 미만은 1인당 $6m^2$ 또는 9%, 100만 이상은 1인당 $9m^2$ 또는 12%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2.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행태의 이론적 모델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 모델은 인간의 공간적 행태가 개인적 필요와 사회적 제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초래된다고 본다. 즉, 개인적 감정, 욕구 등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제한과의 타협 하에 구체적인 행태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적 공간은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필요성과 사회적 접촉의 필요성이 상호작용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그 경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① 프라이버시 (privacy) 모델
② 스트레스 (stress) 모델
③ 정보과잉 (information overload) 모델
④ 2원(individual–group) 모델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적 행태 이론 모형 가운데 인간의 공간행태를 개인적 필요와 사회적 제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프라이버시 모델: 개인이 원하는 수준의 대인접촉을 스스로 조절하여 사적 경계를 확보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키워드는 접촉 통제와 프라이버시 조절이다.
스트레스 모델: 소음, 밀집, 과도한 자극 같은 환경 부담이 적응 한계를 넘을 때 긴장과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는 모형이다. 키워드는 환경 부담과 적응 실패이다.
정보과잉 모델: 처리 가능한 수준을 넘는 정보와 자극이 주어질 때 선택적 차단이나 회피가 일어난다고 보는 모형이다. 키워드는 자극 과다와 정보 차단이다.
2원(individual-group) 모델: 개인적 필요와 집단·사회적 제약이 상호작용하고 타협하면서 공간행태와 개인적 공간의 경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키워드는 개인-집단 상호작용과 사회적 타협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프라이버시 모델은 개인이 원하는 대인접촉 수준을 통제한다는 점이 중심이다. 제시문처럼 개인적 필요와 사회적 제약의 상호작용 전체를 설명하는 모형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프라이버시 모델"이다. 올바르게는 2원(individual-group) 모델이다.

② X
스트레스 모델은 환경 부담이 누적되어 긴장 반응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시문은 스트레스 반응보다 사회적 제약과 개인적 욕구의 조정 과정을 말한다. 틀린 표현은 "스트레스 모델"이다. 올바르게는 개인적 필요와 사회적 제약의 타협을 보는 2원 모델이다.

③ X
정보과잉 모델은 정보량이 처리 한계를 넘을 때 자극을 걸러내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설명한다. 제시문에는 정보의 양이나 자극 차단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욕구와 사회적 접촉 욕구의 균형이 제시된다. 틀린 표현은 "정보과잉 모델"이다. 올바르게는 개인-집단 관계 속 경계 형성을 설명하는 2원 모델이다.

④ O
제시문은 인간의 공간행태가 개인적 필요와 사회적 제약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본다. 또 개인적 공간의 경계가 프라이버시 필요와 사회적 접촉 필요의 상호작용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하므로 2원(individual-group) 모델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이 프라이버시라는 단어 때문에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모델은 접촉 통제에 초점을 두고, 제시문은 그보다 넓게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타협을 말한다는 점이 핵심 구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개인적 욕구 대 사회적 제약, 개인과 집단의 타협, 경계 형성이 함께 나오면 2원 모델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부담 반응, 정보과잉은 자극 과다, 프라이버시는 접촉 통제가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2원 모델은 개인 욕구와 집단 제약의 타협이고, 프라이버시 모델은 접촉 통제이다.

NoteBase

문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① 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② 주거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③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④ 공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한 뒤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비공원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기부채납 = 민간이 조성한 공원 부지를 공원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비공원시설 =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이 조항에서는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뜻한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은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을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정한다.
따라서 허용 범위는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법문에 직접 포함된다.
틀린 부분이 없는 선지이다.

② O
주거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도 법문에 직접 포함된다.
틀린 부분이 없는 선지이다.

③ O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역시 법문에 직접 포함된다.
틀린 부분이 없는 선지이다.

④ X
공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법이 정한 비공원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공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올바른 표현: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비공원시설의 허용 범위를 용도지역 전반으로 넓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문은 허용 용도지역을 예시가 아니라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을 끼워 넣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간공원 특례 문제에서는 먼저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 요건을 확인하고, 이어서 비공원시설 허용 범위를 조문 문언대로 읽으면 된다. 허용 용도지역이 열거되면 열거되지 않은 공업지역은 제외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민간공원 비공원시설은 녹지·주거·상업까지만 가능하고 공업은 제외된다.

NoteBase

문 4. 생물학적 저류지(Bioretention)의 역할 중 하나인 빗물의 수질 조절 기능의 발생과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산작용(transpiration)
② 침전작용(precipitation)
③ 동화작용(assimilation)
④ 흡착작용(adsorption)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물학적 저류지의 빗물 수질 조절 메커니즘과 빗물 양적 조절 메커니즘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물학적 저류지의 수질 조절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침전작용은 부유물질이 가라앉는 과정이고, 동화작용은 식물이나 미생물이 영양염류를 흡수하여 생체 내로 편입하는 과정이며, 흡착작용은 토양 입자나 유기물 표면에 오염물질이 붙어 고정되는 과정이다.
반면 증산작용은 식물이 물을 대기로 방출하는 과정으로 유출량과 수분수지를 줄이는 양적 조절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O
증산작용은 식물이 흡수한 물을 잎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빗물의 양을 줄이는 데는 기여하지만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고정하는 대표적 수질 조절 메커니즘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질 조절 기능의 발생과정으로 바꾸면 흡착작용, 침전작용, 동화작용과 같은 오염물 제거 과정이어야 한다.

② X
침전작용은 유입된 빗물 속 입자성 오염물질이 중력에 의해 가라앉는 과정이므로 수질 조절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가장 옳지 않은 것'으로는 부적절하다.

③ X
동화작용은 식물이나 미생물이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를 흡수해 생체조직으로 편입하는 과정이므로 수질 개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질 조절 기능의 올바른 과정이다.

④ X
흡착작용은 토양, 유기물, 여재 표면에 오염물질이 달라붙어 제거되는 과정이므로 생물학적 저류지의 대표적 수질 정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가장 옳지 않은 것'으로 고치기 어렵고, 오히려 옳은 과정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생물학적 저류지는 식물이 들어가 있으므로 증산작용도 수질 조절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증산은 물의 이동과 양적 저감에 관한 과정이고, 수질 조절은 침전·흡착·동화처럼 오염물질이 제거되거나 고정되는 과정인지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류지 기능을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그것이 물의 양을 줄이는 과정인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인지부터 구분한다. 오염물질의 침강, 흡수, 부착은 수질 조절이고, 증발산이나 침투에 따른 유출 저감은 주로 수문량 조절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질 조절은 침전·동화·흡착이고, 증산은 수량 조절이다.

NoteBase

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② 제2종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③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④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거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법정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수치를 서로 바꾸어 외우지 않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핵심 구분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이 지역별로 다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이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② O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③ O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④ X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는 맞지만,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올바른 표현: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300퍼센트 이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과 연결되는 수치이다.

오답 포인트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혼동하면 ④를 맞는 것으로 보기 쉽다. 이 문항은 건폐율은 맞게 두고 용적률 상한만 250에서 300으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거지역 수치문제는 먼저 건폐율 50과 60을 구분하고, 그다음 용적률 상한을 전용주거지역 100·150, 일반주거지역 200·250으로 묶어서 판단하면 된다. 300이 보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여부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

암기 포인트

전용은 50-100, 50-150이고 일반은 60-200, 60-250이다.

NoteBase

문 6.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상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한 옥상조경의 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그 피복면적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을 옥상조경 면적으로 산정한다.

②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③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옥상조경 면적으로 산정한다.

④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2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상 옥상조경 면적의 환산 기준과 상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초화류·지피식물, 벽면녹화, 옥상 교목에 각각 다른 산정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옥상조경 면적 산정은 옥상이나 벽면에 설치한 조경을 실제 면적이나 수량 그대로 보지 않고 기준에서 정한 환산률과 상한을 적용해 인정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조경기준」 제12조에 따르면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옥상면적은 식재면적의 2분의 1로 본다.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도 피복면적의 2분의 1로 본다. 피복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주당 0.1제곱미터로 환산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옥상에 식재된 교목은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인정되는 면적은 피복면적의 100분의 60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틀린 표현: 피복면적의 100분의 60
올바른 표현: 피복면적의 2분의 1

② O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는 상한 규정을 정확히 적은 선지이다.

③ X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식재면적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옥상조경 면적으로 산정한다.
틀린 표현: 식재면적의 3분의 1
올바른 표현: 식재면적의 2분의 1

④ X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2배가 아니라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틀린 표현: 식재된 교목 수량의 2배
올바른 표현: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2분의 1, 100분의 10, 1.5배처럼 유형별 수치를 서로 뒤섞었을 가능성이 높다. ①의 60퍼센트, ③의 3분의 1, ④의 2배는 실제 기준보다 과장된 수치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상이 옥상 초화류·지피식물인지, 벽면녹화인지, 옥상 교목인지부터 나눈다. 그다음 초화류·지피식물은 2분의 1, 벽면 피복은 2분의 1과 상한 10퍼센트, 교목은 1.5배라는 대응 수치를 붙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옥상 초화·지피는 2분의 1, 벽면 피복도 2분의 1, 벽면 상한은 10퍼센트, 옥상 교목은 1.5배이다.

NoteBase

문 8. 정밀토양도의 토양분류에서 같은 모재로부터 형성된 토양으로 표토의 토성에 따라 구분되며, 지명에 따라 명명되는 것은?

① 토양군
② 토양통
③ 토양구
④ 토양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밀토양도에서 토양통, 토양구, 토양상의 구분 기준과 명명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양통은 같은 모재와 비슷한 생성 과정을 가진 기본 토양 단위로, 지명에 따라 명명된다.
토양구는 같은 토양통을 표토의 토성 차이로 세분한 단위이다.
토양상은 같은 토양통 또는 토양구 안에서 경사, 침식, 자갈함량 같은 현장 조건으로 다시 세분한 단위이다.
토양군은 이들보다 상위의 분류 단위이므로 정밀토양도의 지명형 기본 작도단위와는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토양군은 상위 분류 단위이다. 틀린 표현은 기본 작도단위를 뜻하는 것처럼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토양군이 아니라 토양통이 지명으로 명명되는 기본 단위이다.
② O: 토양통은 같은 모재와 유사한 생성 과정을 가진 토양을 묶은 기본 단위이고, 지명으로 이름을 붙인다. 문항의 결정어는 지명에 따라 명명된다는 점이다.
③ X: 토양구는 같은 토양통 안에서 표토의 토성에 따라 나눈 세분 단위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지명으로 명명되는 기본 단위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토양구는 토양통을 표토 토성으로 세분한 단위이다.
④ X: 토양상은 경사도, 침식 정도, 자갈함량 등 지형과 현장 상태에 따라 나눈 단위이다. 틀린 표현은 모재와 지명명명 기준을 토양상에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토양상은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세분 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문항은 토양통의 특징인 지명 명명과 토양구의 특징인 표토 토성 구분을 한 문장에 섞어 두었다. 이 때문에 ③ 토양구로 끌리기 쉽지만, 지명으로 이름 붙는 기본 단위는 토양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명으로 이름 붙는 기본 단위를 먼저 찾으면 토양통이다. 그다음 표토의 토성 차이는 토양구, 경사나 침식 같은 현장 조건 차이는 토양상으로 연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토양통은 지명, 토양구는 표토 토성, 토양상은 현장 조건이라는 축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9.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상 용도지역별 조경면적 $1m^2$마다의 교목 및 관목의 수량 기준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② 공업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③ 주거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④ 녹지지역 - 교목 0.4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의 용도지역별 조경면적 1제곱미터당 교목·관목 최소 식재수량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교목은 키가 크게 자라는 수목이고, 관목은 비교적 낮게 여러 줄기로 자라는 수목이다.

핵심 구분

기준은 상업지역 교목 0.1주·관목 1.0주, 공업지역 교목 0.3주·관목 1.0주, 주거지역 교목 0.2주·관목 1.0주, 녹지지역 교목 0.2주·관목 1.0주이다. 관목은 네 지역 모두 1.0주 이상으로 같고, 교목 수량만 지역별로 다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상업지역은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이므로 제시된 기준이 정확하다.
2번: X. 공업지역의 교목 기준이 틀렸다. 공업지역은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이다.
틀린 표현: 교목 0.2주 이상
올바른 표현: 교목 0.3주 이상
3번: X. 주거지역의 교목 기준이 틀렸다. 주거지역은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이다.
틀린 표현: 교목 0.3주 이상
올바른 표현: 교목 0.2주 이상
4번: X. 녹지지역의 교목 기준이 틀렸다. 녹지지역은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이다.
틀린 표현: 교목 0.4주 이상
올바른 표현: 교목 0.2주 이상

오답 포인트

관목 수량은 네 지역 모두 1.0주 이상으로 동일한데, 교목 수량까지 비슷하게 외우면 공업지역 0.3주와 주거·녹지지역 0.2주를 뒤바꾸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목은 전 지역 1.0주 이상으로 먼저 고정하고, 교목만 상업 0.1주, 공업 0.3주, 주거·녹지 0.2주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교목은 상0.1·공0.3·주녹0.2, 관목은 전 지역 1.0주이다.

NoteBase

문 10. 「조경설계기준(KDS : 2019)」에 따른 인공지반 식재 기반의 수목하중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물재료의 중량은 지상부의 중량에 지하부의 중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② 중량이 큰 교목을 식재할 경우 교목식재의 부분만 토양 두께를 두껍게 조성한다.

③ 하중계산에는 토양의 건조중량을 사용한다.

④ 수목의 중량은 식재 후의 생장량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KDS : 2019)」상 인공지반 식재기반의 수목하중 산정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식물재료 중량 산정식, 생장량 반영 여부, 그리고 하중계산 시 습윤중량을 쓰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습윤중량은 물을 머금은 실제 상태의 재료 중량이다.
건조중량은 수분을 제외한 마른 상태의 중량이다.

핵심 구분

KDS 기준상 식물재료의 중량은 지상부 중량과 지하부 중량의 합으로 본다.
수목하중 계산에서는 식재 후 생장량을 고려하며, 하중계산에 사용하는 토양 등의 기준 중량은 건조중량이 아니라 습윤중량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KDS 기준은 식물재료의 중량을 $W = W_1 + W_2$로 두고, 지상부 중량과 지하부 중량의 합으로 산출한다. 선지의 진술은 기준과 일치한다.

② O
- 기준은 중량이 큰 교목 등을 식재할 경우 교목식재 부분만 토양두께를 두껍게 조성한다고 본다. 전체를 일률적으로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보강하는 취지이므로 옳다.

③ X
- KDS 기준은 하중계산에 토양 등의 습윤중량을 사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건조중량을 사용한다는 진술이 틀리다.
- 틀린 표현: 토양의 건조중량
- 올바른 표현: 토양 등의 습윤중량

④ O
- 기준은 수목의 중량을 계산할 때 식재 후의 생장량을 고려한다고 본다. 현재 식재 시점의 중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 생육에 따른 하중 증가를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건조중량과 습윤중량을 바꿔 넣은 함정이다. 인공지반 하중 검토는 실제로 작용하는 하중을 보수적으로 봐야 하므로 습윤 상태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공지반 식재기반 문제는 먼저 하중 산정의 기준이 실제 작용하중인지, 생장량을 반영하는지, 식물재료 중량을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누는지를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건조중량과 습윤중량이 나오면 하중계산은 습윤중량 기준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수목하중은 지상부+지하부, 하중계산은 습윤중량, 수목중량은 생장량 반영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관광수요예측에서 (가)는 추세수요를 기초로 하여 공급여건 변화에 따른 보정을 통해서 산출된 수요를 말한다.

① 목표수요
② 보정수요
③ 자연증가수요
④ 총량수요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광수요예측에서 목표수요, 보정수요, 자연증가수요, 총량수요의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목표수요는 추세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장래의 공급여건 변화까지 반영하여 최종 계획목표로 삼는 수요이다.
보정수요는 상황변화에 따른 수요환경 변화를 고려해 조정한 수요이다.
자연증가수요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 정책 및 결정지표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이다.
총량수요는 관광 이동 통계자료상의 목적지별 비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 관광수요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추세수요를 기초로 하고 공급여건 변화에 따른 보정을 거쳐 산출된 수요를 말하므로 목표수요의 정의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보정수요'이다. 보정수요는 상황변화에 따른 수요환경 변화를 고려해 조정한 수요이지, 추세수요를 기초로 공급여건 변화를 반영한 목표수요와는 다르다.
③ X: 틀린 부분은 '자연증가수요'이다. 자연증가수요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나 정책 및 결정지표 변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말하며, 추세수요에 공급여건 보정을 더해 산출한 수요가 아니다.
④ X: 틀린 부분은 '총량수요'이다. 총량수요는 관광 이동 통계자료상의 목적지별 비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 관광수요이며, 제시문처럼 추세수요를 보정해 계획목표로 삼는 수요는 목표수요이다.

오답 포인트

보정수요와 목표수요를 이름만 보고 같은 계열로 묶어 오답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은 '추세수요를 기초로'와 '공급여건 변화'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면 목표수요라는 점을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 개념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했는지부터 구분한다. 시계열 성장추세면 추세수요이고, 상황변화에 따른 일반적 조정이면 보정수요이며, 추세수요에 공급여건 보정을 더해 계획상 최종 목표로 잡은 수요이면 목표수요이다.

암기 포인트

목표수요는 추세수요에 공급여건 보정을 더한 수요이고, 보정수요는 수요환경 변화에 맞춘 조정수요이다.

NoteBase

문 12. 하천의 자정작용 단계 중 용존 산소가 없으며, 악취가 나고 점성질의 오니가 생기며 혐기성 분해가 진행되는 단계는?

① 분해지대
② 활발한 분해지대
③ 회복지대
④ 정수지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하천 자정작용 단계별 용존산소 상태와 분해 양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해지대는 오염물 유입 직후 유기물 분해가 진행되면서 용존산소가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다.
활발한 분해지대는 용존산소가 없거나 거의 없고 물빛이 검게 변하며 악취, 점성질 오니, 혐기성 분해가 두드러지는 구간이다.
회복지대는 분해가 진정되면서 용존산소가 다시 증가하고 수질이 회복되는 구간이다.
정수지대는 자정작용이 거의 완료되어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되찾은 구간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분해지대는 용존산소가 감소하는 초기 오염 구간이지만, 문제처럼 용존산소가 완전히 없고 악취와 점성질 오니가 뚜렷한 단계로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용존 산소가 없으며, 악취가 나고 점성질의 오니가 생기며 혐기성 분해가 진행'이다.
올바르게는 '분해지대는 용존산소가 급감하면서 유기물 분해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② O
활발한 분해지대는 용존산소가 고갈되고 물이 흑색 또는 암회색으로 변하며 악취와 점성질 오니가 생기고 혐기성 분해가 활발한 단계이다.
문제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

③ X
회복지대는 다시 용존산소가 증가하고 오염 상태가 완화되는 단계이므로 악취와 혐기성 분해가 지배적인 상태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용존 산소가 없으며 … 혐기성 분해가 진행'이다.
올바르게는 '회복지대는 용존산소가 회복되며 수질이 개선되는 단계'이다.

④ X
정수지대는 자정작용의 마지막 단계로서 맑은 물 상태에 가까워진 구간이지, 악취와 오니가 심한 구간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악취가 나고 점성질의 오니가 생기며 혐기성 분해가 진행'이다.
올바르게는 '정수지대는 용존산소가 안정되고 수질이 깨끗해진 단계'이다.

오답 포인트

분해지대와 활발한 분해지대는 모두 오염이 심한 구간이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용존산소의 완전 고갈, 흑색화, 악취, 오니, 혐기성 분해까지 나오면 한 단계 더 진행된 활발한 분해지대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하천 자정작용 문제는 먼저 용존산소의 유무를 본다. 그다음 악취, 흑색화, 오니, 혐기성 분해가 함께 제시되면 활발한 분해지대, 용존산소가 다시 늘면 회복지대, 거의 정상 수질이면 정수지대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무산소·악취·오니·혐기성 분해는 활발한 분해지대의 묶음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에서 페리(C. A. Perry)의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가져야 한다.
ㄴ.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배제한다.
ㄷ.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통합 배치한다.
ㄹ. 지구 중심을 거리와 같이 선형이면서 동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ㅁ. 차량을 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고려한다.

① ㄱ, ㄴ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초등학교 중심의 인구 규모, 내부 통과교통 배제, 중심 공공시설 배치 원칙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페리의 근린주구는 초등학교를 중심 시설로 두고, 어린이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범위의 인구 규모를 설정하며, 외곽 간선도로로 경계를 만들고 내부에는 통과교통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보행 중심 주거단위이다.
공원과 공공시설도 주구 중심부에 모아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중심을 선형 가로로 만들거나 차량 중심으로 조직하는 이론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조합이 불완전하다. 페리는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전제로 하고, 주구 내부의 통과교통을 배제하며, 공공시설을 주구 중심부에 통합 배치한다. 틀린 표현은 'ㄷ의 제외'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2번 X: ㄹ과 ㅁ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가 틀리다. 근린주구의 중심은 학교와 공공시설이 놓이는 중심점 성격이지, 거리와 같은 선형의 동적 공간이 아니다. 또한 이 이론은 차량을 계획의 우선 원리로 삼기보다 외곽 간선도로로 차량 흐름을 처리하고 내부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올바르게는 ㄹ, ㅁ을 제외해야 한다.
3번 O: ㄱ, ㄴ, ㄷ의 묶음이 페리의 근린주구 원칙과 정확히 일치한다. 초등학교 유지 가능 인구 규모, 내부 통과교통 배제, 중심 공공시설 배치는 모두 대표 내용이다.
4번 X: ㄷ 자체는 옳지만 ㄹ과 ㅁ이 틀려서 조합 전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린주구를 선형 중심 공간이나 차량 중심 계획으로 이해한 부분이 잘못이며, 올바른 조합은 3번의 'ㄱ,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ㄹ의 '선형이면서 동적인 공간'과 ㅁ의 '차량을 계획의 필수 사항'이 함정이다. 페리는 자동차 시대를 배경으로 했지만 차량 중심 이론이 아니라, 외곽 도로로 차량을 처리하고 내부 보행권을 지키는 주거단위를 구상했다는 점을 놓치면 2번이나 4번으로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린주구 문제는 초등학교 중심 인구 규모, 내부 통과교통 배제, 중심 공공시설 배치의 세 축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선형 상업가로, 동적 중심축, 차량 우선 같은 표현이 붙으면 페리의 원안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페리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중심, 외곽 간선도로, 내부 통과교통 배제, 중심 공공시설'로 묶인다.

NoteBase

문 14. 「조경설계기준(KDS : 2019)」에 따른 공간유형별 식재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차폐식재를 위한 좁은 식재폭은 교목 8주/100m^2, 소교목 12주/100m^2를 표준으로 한다.

② 근린도보권 공원의 교목 식재밀도는 체육공원의 교목 식재밀도보다 높다.

③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교목 식재밀도는 근린도보권 공원의 교목 식재밀도보다 낮다.

④ 어린이공원의 관목 식재밀도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관목 식재밀도보다 높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KDS: 2019)」의 공간유형별 식재밀도 기준에서 공원 유형별 교목·관목 수치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기준

차폐식재는 좁은 식재폭과 넓은 식재폭의 표준 밀도가 따로 제시되고, 도시공원은 <부표 20-2>에서 공원 유형별 교목·관목 식재밀도를 따로 제시한다. 이 문항에서 필요한 값은 어린이공원 교목 0.068주/m^2·관목 0.133주/m^2,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교목 0.051주/m^2·관목 0.224주/m^2, 근린도보권 공원 교목 0.053주/m^2, 체육공원 교목 0.035주/m^2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차폐식재의 좁은 식재폭 표준은 교목 8주/100m^2, 소교목 12주/100m^2이다. 선지의 수치가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 O
근린도보권 공원의 교목 식재밀도는 0.053주/m^2이고, 체육공원은 0.035주/m^2이다. 0.053이 0.035보다 크므로 근린도보권 공원이 더 높다는 설명은 옳다.

③ O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교목 식재밀도는 0.051주/m^2이고, 근린도보권 공원은 0.053주/m^2이다. 0.051이 0.053보다 작으므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더 낮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어린이공원의 관목 식재밀도는 0.133주/m^2이고,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관목 식재밀도는 0.224주/m^2이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더 낮다.
틀린 표현: "어린이공원의 관목 식재밀도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관목 식재밀도보다 높다"
올바른 표현: 어린이공원의 관목 식재밀도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관목 식재밀도보다 낮다.

오답 포인트

④는 어린이공원의 교목 식재밀도 0.068주/m^2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교목 0.051주/m^2보다 높다는 점과 섞어서 보면 쉽게 흔들린다. 이 선지는 교목이 아니라 관목을 비교하므로 반드시 같은 식재층끼리 수치를 대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차폐식재 기준인지 도시공원 <부표 20-2>인지 구분한다. 다음으로 공원 유형과 교목·관목 항목을 같은 줄에서 맞춰 읽는다. 마지막으로 '높다/낮다'의 비교 방향만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어린이공원은 교목 0.068로 근린생활권보다 높고, 관목 0.133으로 근린생활권보다 낮다.

NoteBase

문 15. 영역성(territoria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역성은 인간에서만 볼 수 있는 행태로서 인간에게는 일정 영역 내의 귀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② 공적 영역은 배타성이 가장 낮으며 광장, 해변 등이 이에 속한다.

③ 2차적 영역은 사회적 특정 그룹 소속원들이 점유하는 공간으로서 교실, 기숙사 식당 등이 이에 속한다.

④ 1차적 영역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반영구적으로 점유되는 공간으로서 가정, 사무실 등이 이에 속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역성의 기본 개념과 1차적 영역, 2차적 영역, 공적 영역의 구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역성: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 공간을 자기 영역으로 지각하고 점유·통제하려는 성향이다.
1차적 영역: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점유의 지속성과 배타성이 가장 강한 편이다.
2차적 영역: 특정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며 사용하는 공간으로 1차적 영역보다 배타성은 약하지만 소속감은 분명하다.
공적 영역: 누구나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배타성이 가장 낮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인간에서만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영역성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널리 나타나는 공간 점유 행태이다. 올바르게는 "영역성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며, 인간에게는 일정 영역 내의 귀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이다.
② O: 공적 영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배타성이 가장 낮다. 광장과 해변은 대표적인 공적 영역의 사례이다.
③ O: 2차적 영역은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공간이다. 교실이나 기숙사 식당처럼 소속 집단의 구성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④ O: 1차적 영역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며 비교적 지속적으로 점유되는 공간이다. 가정이나 개인 사무실은 대표적인 1차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영역성을 인간의 심리 개념으로만 외우면 ①에 쉽게 속는다. 이 문항의 함정은 영역성의 적용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한 표현과, 1차·2차·공적 영역의 배타성 차이를 뒤섞어 헷갈리게 만든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영역성이 인간만의 현상인지부터 확인하면 ①을 바로 걸러낼 수 있다. 그다음 공간의 이용 주체와 배타성 수준을 기준으로 1차적 영역, 2차적 영역, 공적 영역을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영역성은 인간+동물, 1차는 생활중심·높은 배타성, 2차는 집단공유, 공적 영역은 누구나 이용·낮은 배타성이다.

NoteBase

문 16. 「조경설계기준(KDS : 2019)」에 따른 토지이용 상충지역의 완충녹지의 설계일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한다.

② 보안, 접근억제, 상충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녹화면적률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방풍식재는 수고가 높을수록 바람의 투과율이 높으므로 그 폭을 10~20m로 넓게 설계한다.

④ 요구되는 높이의 상록수가 없을 때는 성장이 빠른 낙엽수를 배식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설계일반사항 중 설치 목적별 녹화면적률과 폭원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완충녹지 = 상충하는 토지이용 사이에서 차폐, 보안, 접근억제, 환경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녹지이다.

핵심 구분

재해 발생 시의 피난지로 설치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보안·접근억제·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하고, 방풍식재의 폭은 10~20m로 넓게 설계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한다는 기준 문구와 같다.

② X
보안·접근억제·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틀린 표현: "녹화면적률이 50% 이상"
올바른 표현: "녹화면적률이 80% 이상"

③ O
방풍식재는 수고가 높을수록 바람의 투과율이 크므로 그 폭을 10~20m로 넓게 설계한다는 기준 문구와 같다.

④ O
요구되는 높이의 상록수가 없을 때에는 성장이 빠른 낙엽수를 배식한다는 기준 문구와 같다.

오답 포인트

②는 식재 대상은 맞게 적고 녹화면적률 수치만 50%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피난지용 70%와 보안·접근억제·토지이용 조절용 80%를 섞어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충녹지 기준 문제는 먼저 설치 목적을 구분한 뒤 녹화면적률 수치를 대입하면 된다. 피난지인지, 보안·접근억제·토지이용 조절용인지가 갈리면 70%와 80%가 바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피난지 70%, 보안·접근억제·토지이용 조절 80%, 완충녹지 폭원 최소 20m이다.

NoteBase

문 17. 부지면적이 4만㎡인 곳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해당 공원 안의 ㉠ 건폐율과 ㉡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비율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 20% 이하, ㉡ 40% 이하

② ㉠ 20% 이하, ㉡ 제한 없음

③ ㉠ 15% 이하, ㉡ 40% 이하

④ ㉠ 15% 이하, ㉡ 제한 없음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근린공원의 면적 구간별 건폐율과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4만㎡가 3만㎡ 이상 10만㎡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과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40% 이하라는 점을 함께 맞추는 것이다.

용어 풀이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공원시설 부지면적 = 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이 차지하는 부지면적의 총비율이다.

핵심 구분

근린공원의 건폐율은 공원면적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3만㎡ 미만은 20% 이하, 3만㎡ 이상 10만㎡ 미만은 15% 이하, 10만㎡ 이상은 10% 이하이다. 반면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면적 구간과 무관하게 당해 공원면적의 40% 이하이다. 따라서 4만㎡ 근린공원은 건폐율 15% 이하, 공원시설 부지면적 40% 이하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공원시설 부지면적 40% 이하는 맞지만, 건폐율 20% 이하는 틀리다. 4만㎡는 3만㎡ 이상 10만㎡ 미만 구간이므로 건폐율은 15% 이하이다.
- 틀린 표현: 건폐율 20% 이하
- 올바른 표현: 건폐율 15% 이하

② X
- 건폐율 20% 이하도 틀리고,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없음도 틀리다. 이 지침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당해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제한한다.
- 틀린 표현: 건폐율 20% 이하,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없음
- 올바른 표현: 건폐율 15% 이하, 공원시설 부지면적 40% 이하

③ O
- 4만㎡는 3만㎡ 이상 10만㎡ 미만이므로 건폐율은 15% 이하이다. 공원시설 부지면적도 40% 이하가 맞다.

④ X
- 건폐율 15% 이하는 맞지만,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없음을 고른 점이 틀리다. 지침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40% 이하로 제한한다.
- 틀린 표현: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없음
- 올바른 표현: 공원시설 부지면적 40% 이하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면적 구간별로 달라지는 것은 건폐율이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별도로 40% 상한이 있다는 구조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①은 공원시설 부지면적 수치가 맞아서 건폐율 구간을 대충 외운 경우 쉽게 끌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린공원 수치문항은 먼저 공원면적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끊어 판단한다. 그다음 건폐율은 구간별 수치를 대입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별도 공통 상한 40%를 붙여서 조합한다.

암기 포인트

근린공원은 3만-10만㎡ 구간이면 건폐율 15%,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항상 40% 이하이다.

NoteBase

문 18. 케빈 린치(K. Lynch)가 제안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모서리(edges)

② 시점(view point)

③ 결절점(nodes)

④ 지역(district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 5요소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케빈 린치는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로 통로(paths), 모서리(edges), 지역(districts), 결절점(nodes), 랜드마크(landmarks)를 제시하였다.
이 다섯 요소는 사람들이 도시를 인지하고 길을 찾는 기본 틀을 이룬다.

선지별 해설

① O
모서리(edges)는 두 지역을 가르거나 경계를 이루는 선형 요소이다. 하천, 철도, 담장처럼 도시 공간의 경계를 인식하게 하는 요소이므로 린치의 도시 이미지 요소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시점(view point)'이라는 표현이다. 케빈 린치의 5요소에는 시점이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통로(paths), 모서리(edges), 지역(districts), 결절점(nodes), 랜드마크(landmarks)가 도시 이미지 요소이다.

③ O
결절점(nodes)은 교차로, 광장, 환승지점처럼 사람의 이동과 활동이 집중되는 전략적 초점점이다. 도시 구조를 파악할 때 중심점으로 작용하므로 린치의 요소에 해당한다.

④ O
지역(districts)은 공통된 성격을 지닌 비교적 넓은 도시 구역이다. 주거지, 상업지처럼 내부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단위이므로 린치의 요소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케빈 린치의 이론을 대략 기억하면 '도시를 보는 지점' 같은 그럴듯한 표현을 요소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린치의 5요소는 시각 경험의 일반어가 아니라 paths, edges, districts, nodes, landmarks라는 고정된 분류 체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이론 문제는 먼저 학자의 대표 키워드를 떠올린 뒤 고정 목록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케빈 린치는 도시 이미지 5요소를 묻는 문제로 연결하고, 보기의 용어가 이 다섯 목록에 없으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린치 5요소는 paths, edges, districts, nodes, landmarks이며 view point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9. 레크리에이션 계획의 접근방법에서 자원형 접근방법의 지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용자 선호도

② 이용자 참여율

③ 한계수용력

④ 시장수요와 기회의 가격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레크레이션 계획의 접근방법 중 자원형 접근방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원형 접근방법은 자원의 물리적·생태적 수용 한계를 기준으로 계획하는 접근이다. 핵심 키워드는 자원상태, 환경용량, 한계수용력이다.
수요형 접근방법은 이용자의 선호, 만족,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계획하는 접근이다. 핵심 키워드는 이용자 선호도, 참여율, 만족도이다.
시장형 접근방법은 가격과 수요를 통해 자원 이용을 판단하는 접근이다. 핵심 키워드는 시장수요, 가격, 비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용자 선호도는 이용자 중심의 수요형 접근방법에서 주로 쓰는 지표이다. 자원형 접근방법의 지표로 보려면 자원의 수용한계나 환경훼손 정도처럼 자원 자체의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
② X: 이용자 참여율도 수요형 접근방법의 대표 지표이다. 많이 참여하는지가 아니라 자원이 얼마나 이용을 견딜 수 있는지가 자원형 접근방법의 판단기준이다. 자원형 지표로 고치면 한계수용력이나 적정 이용밀도가 된다.
③ O: 한계수용력은 특정 자원이 훼손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이용 수준을 뜻하므로 자원형 접근방법의 대표 지표이다. 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가능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다.
④ X: 시장수요와 기회의 가격은 경제성 또는 시장형 접근에 가까운 지표이다. 자원형 접근방법은 가격보다 자원의 물리적·생태적 허용범위를 본다. 자원형 지표로 고치면 시장수요와 기회의 가격이 아니라 한계수용력이다.

오답 포인트

이용자, 참여, 시장수요처럼 사람의 행동이나 가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이면 자원형 접근과 혼동하기 쉽다.
자원형은 사람의 선호가 아니라 자원 자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본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기준축이 사람인지 자원인지 먼저 구분하면 된다. 이용자 선호·참여·수요가 나오면 수요형 또는 시장형에 가깝고, 수용력·환경용량·훼손 한계가 나오면 자원형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자원형은 사람 반응이 아니라 자원 한계를 본다.

NoteBase

문 20. 경관분석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쉐이퍼(Shafer)와 미츠(J. Mietz)는 스코틀랜드의 계곡 경관을 평가하기 위해 계곡바닥과 계곡의 형상 및 경사를 구분·파악하여 12개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경관가치를 상대적 척도로서 계량화하였다.

② 레오폴드(Leopold)는 도시경관을 분석함에 있어 기호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③ 립튼(Litton)은 산림경관을 분석하는 데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림경관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④ 웨스케트(Worskett)는 8×10인치 크기의 흑백사진을 가지고 자연경관에 대한 시각적 선호에 관하여 계량적 모델을 연구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관분석 기법을 대표 연구자와 핵심 방법론에 정확히 연결하는지 묻는 인물·이론 매칭형 문항이다.

핵심 정리

Shafer 계열 연구는 자연경관 사진을 이용해 선호도를 계량화하는 심리물리적 접근이다.
Leopold는 하천·계곡 경관의 고유성 평가나 환경영향평가와 연결되는 연구자이다.
Litton은 산림경관을 시각회랑과 조망구조로 파악하고 경관 유형을 분류한 연구자이다.
Worskett는 도시와 마을의 성격, 보전, 도시설계를 다룬 인물로 자연경관 사진 선호모형의 연구자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Shafer와 Mietz"가 스코틀랜드 계곡경관을 계곡바닥, 계곡 형상, 경사 등으로 나누어 상대척도로 계량화하였다는 연결이다. Shafer 계열 연구는 경관사진의 구역과 형태를 분석하여 선호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가깝고, 계곡바닥 폭과 사면·계곡 특성을 비교하는 평가는 Leopold 계열의 경관평가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Leopold는 도시경관 분석에서 기호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표현이다. Leopold는 하천·계곡 경관의 고유성 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Leopold matrix로 연결되는 인물이다. 도시경관의 기호화·시퀀스 분석은 Appleyard, Lynch, Myer 등의 연구와 연결된다.
③ O. Litton은 산림경관을 분석할 때 시각회랑을 설정하고 조망구조를 읽어 경관을 유형화하였다. 그의 대표 저작은 산림경관의 인지와 기술을 위해 6개의 분석요소와 7개의 구성유형을 제시하므로 선지의 연결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Worskett가 8×10인치 흑백사진으로 자연경관 선호의 계량적 모델을 연구하였다"는 연결이다. Worskett는 도시와 마을의 성격 및 보전을 다룬 인물이다. 자연경관 사진을 이용한 계량적 선호모형은 Shafer, Hamilton, Schmidt 등의 연구로 보는 것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자연경관의 사진 평가와 계곡경관 계량화 기법을 다른 연구자에게 뒤섞어 놓은 선지이다. ②는 "도시경관"과 "기호화"라는 단어만 보고 Leopold처럼 익숙한 평가기법 연구자를 연결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자 문제는 이름보다 대표 키워드를 먼저 붙이면 빠르게 정리된다. Litton은 산림경관·시각회랑·7가지 유형, Leopold는 하천·계곡경관과 영향평가, Shafer는 사진 기반 선호예측, Worskett는 도시·마을 경관 보전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Litton = 산림경관 = 시각회랑 = 7가지 유형이다.

NoteBase